



NO. 130

믿음 주는 환자중심 병원

# 고대구로병원뉴스

발행인 은백린 발행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TEL 1577-9966 FAX 02-2626-2275 홈페이지 http://guro.kumc.or.kr 편집, 디자인 홍보팀 02-2626-2270 발행일 12월 26일 월간

## 이용자 중심의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확장 오픈



### 간호사 전문 상담 실시 진료 예약 변경 SMS로... 신속·간편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11월 13일(월) 오후 1시 융복합연구원 3층에서 '통합콜센터 구축 및 확장 오픈식'을 가졌다.

새롭게 문을 연 콜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콜센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확장한 것으로 환자 편의 증대와 진료 예약 서비스 개선, 상담 가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기존 콜센터 시스템은 쌍방향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일반적인 ASP방식으로 문의와 예약에 제약이 따랐다. 거기다 콜센터 인원수 부족으로 상담 대기 시간도 길었으며 전문적인 의학 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없어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려대 구로병원은 ㈜브로드씨엔에스와 손잡고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콜센터 구축에 나섰다.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연 콜센터는 CTI 기반으로 병원전 산시스템과 연동되는 의료기관 특화 솔루션 설치와 전문 상담원 증원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멀티채널서비스로 1명의 상담원이 최대 6명과 동시 상담이 가능해져 대기 시간 단축을 시켰으며 환자가 예약 사항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전화 연결 없이 문자 메시지(SMS)로 변경 사항을 전송하기만 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예약 부도율을 줄였다. 또한 스마트설문 기능 도입으로 효율적으로 개선 사항 수집과 환자 경험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아진 것은 상담 서비스다.

일반 예약과 안내만을 목적으로 하던 콜센터에 전문 간호 인력이 투입되면서 진료과 선택과 증상 관련 간단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대학병원 진료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한

결 수월해지고 긴 기다림 끝에 해당과로 전화를 돌려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은 "이번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증축은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 사항 중 하나"라며 "콜센터 오픈을 통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상담 품질 고급화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은 향후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전화 연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콜센터는 11월 1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화 예약, 검사 일정 변경, 각종 서류 발급 안내 등 다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 콜센터 1577-9966



# 한눈에 보는 고려대 구로병원 2017

# 2017



#1

### 정밀의학 심포지엄

1월 11일(수) '정밀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미래형 의료 기술 개발에 앞장서 국가 의료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 감마나이프센터 개소

2월 22일(수) 서울 서남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최초로 감마나이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감마나이프센터는 뇌신경센터 및 암병원과 유기적인 협력진료 체계를 구축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 서남부권 전역과 안암과 안산병원까지 관할하여 적극적으로 뇌신경질환 치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3월 2일(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0병동(항암치료병동)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해당 병동의 간호 인력을 2배가량 확대하고 병실 복도에 보조 스테이션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또 전산 시스템 개발, 입·퇴원 절차 개선, 투약 시스템 보완, 배식 매뉴얼 개발 등 각종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

### 입원생활안내 서비스 강화

3월 13일(월) 입원생활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관 1층에 독립적인 안내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입원생활안내' 설치를 통해 11 면담으로 입원 생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병력 사항 및 요구 사항을 청취해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 감축과 환자 편의 향상, 병동 환자 케어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5

### 서울 서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체결

4월 25일(화) 서울 서남부 의료기관 11곳과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협력 진료를 위한 의료협약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서남부 권역 내 응급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0

### 'KU-메디컬 이미지 데이터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개최

7월 17일(월) 오후 2시 암병원 10층 회의실에서 'KU-Medical Image Data Center 개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의료 영상 데이터의 비식별화, 분류, 가공 등 미국 FDA 임상시험 영상 활용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갖추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 장기이식센터 개소

7월 13일(목) 본관 1층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센터장에 신장내과 권영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장기이식센터는 간, 심장, 신장, 각막을 아우르는 통합적 장기이식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와 뇌사 기증자 및 생체 장기 기증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고 실제 이식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8

###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 국제 심포지엄 개최

7월 12일(수) '제 9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지원센터(센터장 이흥만)는 매년 국내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

### 구로구 유일 병무청 지정병원 선정

7월 1일(토) 서울지방병무청과 민간의료기관 위탁 검사 협약을 체결하고 구로구 최초의 병무청 지정병원에 고려대 구로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자들의 신체 등급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사용 진단서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6

### 배려하는 우리 존중받는 나, 직장 내 문화 캠페인 실시

4월 24일(월)과 26일(수) 양일간 직장 내 배려와 존중 문화 확립을 위한 핵심진절리더 선포식을 가지고 하루종일 굿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배려하는 우리, 존중받는 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교직원 주도 하에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더불어 환자 중심, 교직원 중심의 희망 찬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핵심진절리더 활동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원내 캠페인 및 친절 교육 실시, 수요음약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

### 감마나이프센터 수술 100례 달성

7월 19일(수) 감마나이프센터(센터장 권택현)가 수술 100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서남부권 최초로 감마나이프 센터를 개소하여 뇌종양 및 뇌전이상, 뇌동정맥기형의 방사선 수술을 시행한지 약 5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현재 진료·검사·치료 계획 수립·수술 및 퇴원 후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자 맞춤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2

### 국내 두 번째 병리진단 국제표준 ISO 15189 획득

7월 10일(월) 병리학 분야에서 국내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 국제표준 'ISO 15189'를 인정받았습니다. ISO 15189는 미국, 유럽, 호주 등 52개국 2,200개 의료기관이 각종 검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 중인 유일한 국제 표준입니다.



#13

### 병원신임평가 실시

7월 14일(금) 의료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었는지, 의료의 질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긍정적인 총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4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 개소

7월 18일(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 개소로 의료기기 개발 업체들은 수준 높은 검사를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공증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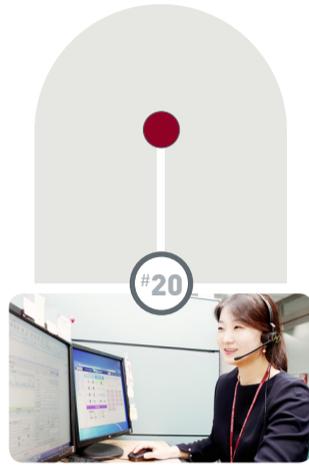


#15

###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7월부터 환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면회 자제를 유도하고 방문객 통제가 가능한 자동문 설치와 방문객 일지 작성 등으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

### 통합콜센터 오픈

11월 13일(월) 통합콜센터를 확장 오픈했습니다. 멀티채널서비스로 상담 대기 시간을 단축시켰고 별도의 전화 연결 없이 문자 메시지(SMS)로 진료 예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

### 임상연구병동 증축 개소

11월 9일(목) 30병상 규모의 임상연구병동을 증축 개소했습니다. '약동/약력 분석실', '검체처리실', '병상'으로 목적에 따라 구획을 나눠 쾌적함과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임상연구병동의 증축 개소를 발판삼아 산·학·연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8

### 재난대응 안전한국 긴급구조 종합훈련

11월 3일(금) 긴급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구로구청, 구로소방서, 구로경찰서, 육군 7668부대, 인근자치단체 등 다수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2시간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했습니다.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지고 비상진료구역 설치 및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17

### AAHRPP 인증 현장 조사

9월 13일(수)부터 15일(금)까지 3일간 'AAHRPP'(국제 연구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협회) 조사단의 현장 점검 실사를 받았습니다.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 받고 국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평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12월 22일,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성공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인 전면 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했습니다.



#16

### 정년 퇴임식

8월 30일(수) 치과 신상완 교수, 영상의학과 설혜영 교수, 신경외과 정홍섭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조숙행 교수, 간담체외과 최상룡 교수, 순환기내과 오동주 교수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여섯 명의 교수들은 제자들에게는 커다란 귀감이었으며 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삶을 되찾아준 은인이었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을 맞이하는 그들이 늘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 똑/똑/한 닥터K

###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식중독은 더운 여름철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 가능하다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란?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 + 노로바이러스 어떻게 감염되나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수증은 영아, 노인, 면역 저하자에 더 잘 나타납니다.

#### 1. 임상증상

오심, 구토, 설사, 복통이 주된 증상  
권태감, 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도 동반 가능  
위장관 증상은 24-48시간 지속될 수 있음

#### 2. 잠복기

잠복기는 24-48시간

#### 3. 예후(증상결과)

대부분 저절로 회복  
회복 후 면역력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편임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인>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3. 물은 끓여 마십니다.

#### <환자>

1.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3일까지 공동 생활을 피합니다.
2. 식품취급자, 간호직 종사자는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3일까지 식품취급, 간호 업무를 피하도록 합니다.
3.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1.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은 염소 1,000~5,000ppm을 묻힌 종이타월 등으로 닦고 10분 후에 물(깨끗한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2.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환자가 접촉한 문고리나 물품은 염소 1,000~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주세요.)
3.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구토물, 분변으로 더러워진 옷, 침구는 염소 5,000ppm에 30분 이상 담근 후 세탁해 주세요.)
4.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5.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이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구토물이나 설사를 치울 때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 구토물이나 분변에는 바이러스가 가득합니다. 깔끔하게 치우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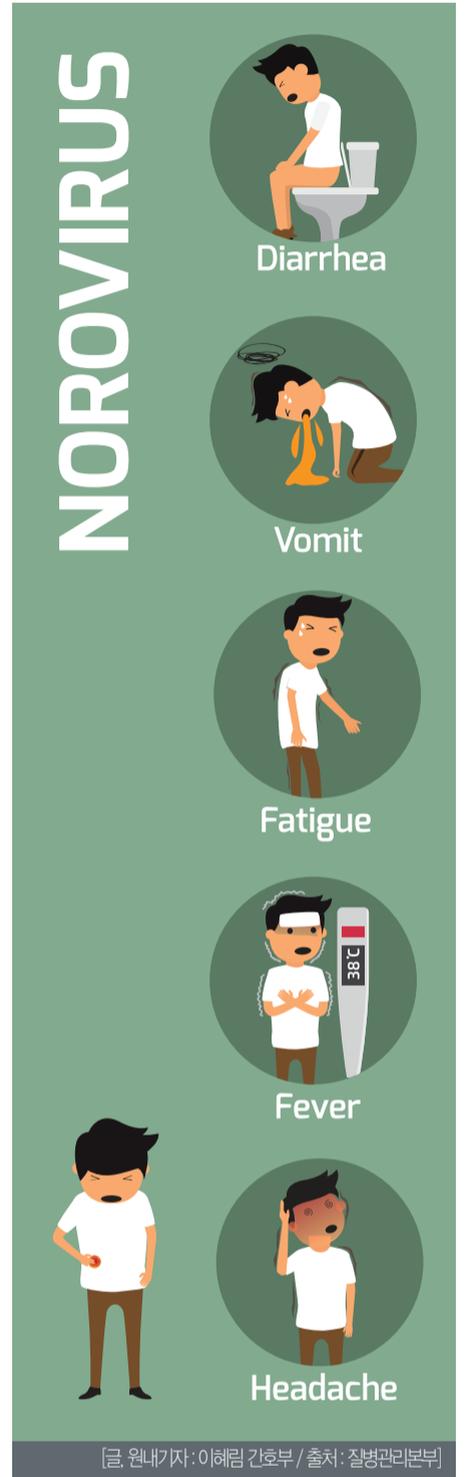
- ① 일회용 장갑 및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 ② 소독액(염소 1000~5000ppm)을 적신 종이타월로 구토물 등을 닦고, 닦아낸 면을 덮어가면서 담아 제거한 후 비닐봉투에 넣어 버리십시오.
- ③ 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수 더럽혀진 곳을 수차례 닦은 후 물로도 수차례 닦습니다.
- ④ 사용한 일회용 장갑 및 앞치마를 비닐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독액을 뿌린 후 밀폐시켜 버립니다.
- 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 염소 1,000 ppm (0.1%) 만드는 법

-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 1/5양의 염소계 표백제를(4%기준) 붓습니다.
- 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단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 ※ 염소 5,000 ppm (0.5%) 만드는 법

-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 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4%기준) 붓습니다.
- 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단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 생/생/건/강

### 고관절 골절 방지 시 사망 위험!

골다공증 환자들은 특히 겨울철에 골절상을 많이 입게 된다. 손목이나 발목을 다치는 것은 물론이며 심한 경우에는 고관절이나 척추에도 손상을 입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부위가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이다. 고관절 골절은 흔히 허벅지와 골반을 잇는 부위가 부러지는 것을 말하는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체중을 견딜 수 없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에 수개월 동안 꼼짝없이 침상 생활을 해야만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은 쉽게 폐렴이나 욕창을 동반하게 되며 오래 누워 있게 되면 혈전이 생기고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고위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적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6개월 이내 골절로 인한 이차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환자의 5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고관절골절 중 발생 빈도가 높은 대퇴부 전상관절 골절은 금속정과 같은 내고정물을 이용한 수술적 고정을 통해 골절부위를 안정화해야 한다.

노년층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칼슘 섭취에 신경 쓰고 주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약물 치료, 운동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한다. 골다공증만 치료해도 골절 위험이 50%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겨울철 운동은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척추와 관절에 충분한 영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근육과 인대에 활력을 되찾아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골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건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 얼어붙은 빙판길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걸음 속도와 폭을 10%이상 줄이는 것이 안전하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걸으면 균형을 쉽게 잃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지팡이나 보조기구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도움말 :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



###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저온화상'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며 전기장판, 온풍기, 핫팩 등이 등장하고 있다. 전기장판으로 따뜻해진 이불 속에서 몸을 먹으며 핸드폰과 책을 보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하지만, 장시간 온열제품에 노출 되면 저온화상이나 피부건조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은 체온보다 높은 45도 이상의 온도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피부 속 단백질변성으로 피부조직이 손상되어 수포나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한다.

겨울에는 특히 전기장판, 찜질팩, 핫팩, 온풍기 등의 사용이 많아 저서 저온화상을 입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고온 화상처럼 즉각적으로 통증과 물집이 나타나지 않고, 노출 부위가 붉게 달아올라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난다. 우선적으로 열기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화상부위를 10분정도 달게 해주는 것이 좋는데, 얼음을 이용하는 것은 통증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어 좋지 않다.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는데 함부로 터트리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올바른 치료를 받길 권장한다.

저온화상으로 인해 열성홍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통증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붉은 반점모양으로 나타나 점차 넓게 갈색 그물모양으로 변해 하지장백류로 오

해하는 사람도 있다. 온열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면 서서히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나, 심한 경우 색소침착 및 세포 손상이 남아 영구적일 수 있으니 치료와 함께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게임 영상 시청 등으로 뜨거워진 휴대폰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온열제품들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사용해야 하며, 온도는 체온 이하로 유지해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고대 구로병원 피부과 전지현 교수]



# KUMC뉴스

## 국제 기아 근절 위해 앞장선다!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11월 23일(목) 오후 4시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와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채성원 진료부원장,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유원식 회장, 이찬우 본부장이 참석하여 긴급구호 활동과 의료 봉사 활동, 고위험 환자의 긴급의료 지원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고려대 구로병원과 기아대책은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봉사단을 파견하고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며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은백린 병원장은 "이번 기아대책과의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은 매년 취약 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 전달, 진료비 및 희귀약품 지원 사업, 국내외 의료 봉사 활동 실시 등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인공신장실 임상진료 프로그램 개발 협약 체결



고려대 구로병원이 11월 24일(금) 오후 4시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실과 '헬스아바타 Dnet 및 아바타 빈즈'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서울대 의대 정보의학실 김주한 교수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신장실 임상진료에 활용하는 스마트기용 소프트웨어 '헬스아바타 Dnet' 개발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소프트웨어 '헬스아바타 Dnet'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혈액투석을 관리할 수 있고 중복검사, 중복처방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개인 진료기록을 이용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공동데이터모형인 K-CDM 및 인공신장실 Dnet, 아바타 빈즈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력을 수행하고자 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은백린 병원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등 신장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편의가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화학 재난 대비 제염제독 훈련 실시



고려대 구로병원이 11월 15일(수) 오후 2시 의생명연구센터 일대에서 '2017년 화학재난 제염·제독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제염·제독 훈련은 재난응급의료 거점 병원으로서 화학 테러 및 방사능, 독극물 누출 사고 등과 같은 국가 재난 사고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까운 구로공단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오염 물질에 노출된 환자들이 내원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실제처럼 훈련을 진행했다.

의료진들은 화학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제염테트를 설치하고 방호복을 착용 한 뒤 환자 10명의 제염 작업에 돌입했다.

경증 환자는 1인 샤워 부스로 안내하여 직접 제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환자는 텐트 안 온수 시설을 이용하여 제염을 도왔다. 이후 환자들은 호소 증상에 따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은 서울 서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서 별도 분리된 격리외래와 음압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연제 발표상 수상



고려대 구로병원이 11월 23일(목)에서 24일(금)까지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참여해 우수연제 발표상을 수상했다.

주사실 장희은 간호사가 발표한 '정맥주사 심화교육을 통한 신규 간호사 정맥주사 정확도 향상에 대한 내용'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연제 발표상을 수상하게 됐다.

**연제발표** ▲지침 관리 프로세스 개선활동(적정진료관리팀 이영순 대리) ▲초진 환자 오래 진료 프로세스 개선활동(간호부 항암치료실 이정민 간호사) ▲말균 의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검역 예방 및 업무 효율성 향상(63병동 이은숙 수간호사) ▲정맥주사 심화교육을 통한 신규간호사 정맥주사 정확도 향상(간호부 주사실 장희은 간호사)

**포스터 발표** ▲검사관련 업무 정보 공유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활동(60병동 전문 주 수간호사)이, 포스터전시에는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캥거루 케어 활동(산생아 중환자실 최영숙 수간호사) ▲입원생활 안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활동(50병동 사일자 수간호사)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 활동(응급의학과 박해경 간호사) ▲사분발급 프로세스 개선(의료정보팀 권희경 의무기록사) ▲영상의학과 수납과 접수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 서비스 개선(영상의학과 홍은애 방사선사)

## 잠깐만! 지금 손 씻으셨나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관리실장 송준영은 11월 21일(화)부터 22일(수) 양일간 '감염관리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료했다.

이번 감염관리 캠페인은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21일에는 병동을 돌며 손위생 실천을 장려하고 22일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과 휴대전화의 청결도 조사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오후에는 '제6차 의료관련 감염관리 교육(11)'을 실시해 감염관리에 대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HI교육은 의료관련 감염 예방과 감소를 위해 감염관리실 주체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번 교육은 ▲항생제 개론 ▲항생제 알러지와 피부반응검사 ▲제한항생제 관리와 적정사용에 대한 강의로 꾸며졌다.

교육에 앞서 손위생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해 포상식도 실시했다.

우수 직원에는 1중환자실 조민주 간호사와 2중환자실 임소현 간호사가 뽑혔으며 우수 부서에는 성형외과과 7병동, 10병동이 각각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포상장과 포상금이 전달됐다.

## 장기 기증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장기 기증 생명나눔 캠페인'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24일(금) 12시부터 2시까지 지하 2층 직원식당 앞에서 열렸다.

장기 기증 센터장 권영주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생명잇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담당자들이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서약 독려 활동을 펼쳤다.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기증 센터(원내 1920)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증은 진행되지 않는다.

권영주 센터장은 "장기 기증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서약에 동참한 한 교직원은 "최근 장기 기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재생의학 R&D 활성화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고려대 구로병원이 12월 5일(화) 오후 2시 30분 임병원 3층 회의실에서 '약물 전달 개선 물질 및 재생의학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려대 구로병원과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의 자회사 ㈜오스힐, 차병원그룹 자회사 ㈜차메디텍과 ㈜차바이오프앤씨 그리고 ㈜카이엔바이오텍 총 6개 기관들이 모여 맺은 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약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R&D 투자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단독 출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내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기술과 지식을 활용

하는 산업화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연구중심병원과 자회사,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연구, 개발, 산업화를 위해 공동 투자 및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임상플랫폼이자 사업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체결에 앞서 6개 기관들은 골골격계 재생 의료 산업을 이끌던 ㈜오스힐의 기술과 차병원그룹의 선도적인 제대혈줄기 세포치료 기술을 앞세워 연구, 개발해 낸 피부 재생 미용기기 와 코스메틱을 상품화 했다.

내년 초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상품화될 예정이다.



친/절/칼/럼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한다.



한 달에 한 번 친절리더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인사한다'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반복적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어느 날 접수창구에서 직원이 일어나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환자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독려했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인사와 관련된 인상 깊었던 짧은 일화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타과 진료를 보기 위해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진료실 안에서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아주 크고 우렁찬 인사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하지? 지인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제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으신 의사선생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시며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 왔습니다. 제가 직원이라서 그러시는 건가 싶었지만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온 후에도 다른 환자분들에게 똑같이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은 매우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접받는 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정말 좋았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여러번 주변 사람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선생님처럼 환자분들이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부끄럽지만 생각으로만 그쳤을 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건넨 인사 한 번으로 타인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할 수 있고 지친 동료나 선·후배에게는 비타민보다도 더 값진 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병원 고객분들께는 친절환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과 최희정 조무사]

질/환/별/자/가 진단법 여러분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전립선비대증

50대 이상의 남성 절반이 경험하게 된다는 전립선비대증은 생식기관인 전립선에 덩어리(결절)가 형성돼 커지는 질병을 말한다.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요도가 좁아져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방광 기능도 약해진다.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 급성 요폐 증상이 발생하거나 요로감염, 방광 내 결석 생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간단한 자가진단으로 전립선비대증 여부와 증상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변 관련 증상 체크리스트 *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 계산		전혀 없다	5회중 1회	5회중 2회	5회중 3회	5회중 4회	거의 항상
1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2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3	소변 줄기가 끊어져서 다시 힘줘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4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5	소변 줄기가 약하다거나 가늘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6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0	1	2	3	4	5
7	잠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몇 회나 있습니까?	(없다) 0	(1회) 1	(2회) 2	(3회) 3	(4회) 4	(5회 이상) 5

▶ 증상 점수에 따라 0~7점이면 경증, 8~19점이면 중증, 20~35점이면 심각한 수준

[출처: 국제전립선증상 점수표]

칭/찬/열/차



115호 칭찬열차 주인공

태가BM 임 영 레 님

책임간호사(감염내과) 이원실 님이 태가BM 임영레 님을 추천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발 빠르게 달려와서 해결해 주십니다. 심 없이 주변 환경을 살피고 청결한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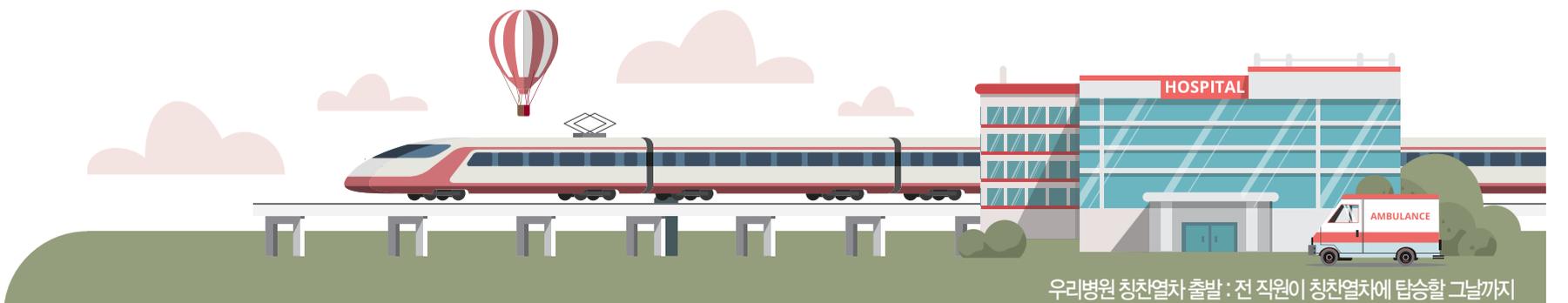
115호 칭찬열차 주인공

보호요원실 이 재 복 님

8병동 유진아 님이 보호요원실 이재복 님을 추천합니다

환자 이송 요청 횟수가 많아도 짜증내거나 인상 쓰는 일 없이 늘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송해 주십니다. 🍎

[글 사진 원내기자 최원의 핵의학과]



우리병원 칭찬열차 출발 : 전 직원이 칭찬열차에 탑승할 그날까지

## 연말연시 나/눔/헌/장

### 사랑과 나눔으로 온기 가득한 나날들 : 고려대 구로병원의 2017년 마지막 이야기



#### 12월 19일(화)~21일(목)

##### 환우의 날

본관 1층 로비에서 총 3일에 걸쳐 12시 30분부터 1시간 씩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들을 위한 '환우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친절리더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 이번 행사는 차와 커피를 나눠주는 티타임과 산타복을 입은 은백린 병원장과 함께 사진 찍기, 친절리더들의 합창 공연, 소망트리 새해 소망 달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은백린 병원장은 교직원 및 환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으며 모두의 산타로 분해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였던 '합창 공연'은 친절리더들이 오랜 시간 연습해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해 아름다운 선율을 모두에게 선물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 12월 19일(화)

#####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

구로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건강계단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희망복지재단 최동욱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 실무진들도 함께해 한마음으로 기부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건강계단 기부금은 2014년 구로구청 청사 내 건강계단을 설치한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1년간 적립한 금액을 연말 기부금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건강계단은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20원의 기부금이 적립됩니다. 올해는 1,000만원의 기부금이 모금됐습니다. 기부금은 지역민들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신체 사업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20일(수)

##### 토yota 자선 병원 콘서트

오후 4시 신관 1층에서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토요타 자선 병원 콘서트는 (재)KBS교향악단이 주관하고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고려대 구로병원을 시작으로 콘서트의 막이 올랐으며 개그맨 안상태가 사회를 보고 지휘 윤현진, 연주 KBS교향악단, 베이스 전준한 등이 출연했습니다.

브람스, 모차르트, 비발디의 명곡과 함께 춤곡 및 영화 음악, 성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12월 22일(금)

##### 구로병원 어린이집 산타 출동!

고려대 구로병원 어린이집의 천장이 들썩들썩,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찾아오는 구로병원의 산타가 올해도 빨간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아이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동심 가득한 눈으로 초롱초롱 산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이 빛납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자리주길 바라며 아이들을 위해 고사리 같은 작은 손 위에 선물을 하나씩 올려주었습니다. 올해도 행복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 12월 23일(토)

#####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식

입원 환이들을 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과 IKEA광명점이 함께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에도 퇴원하지 못하는 입원 환이들을 위한 작은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선물은 소아청소년과 이은상 교수와 남효경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직접 병동을 돌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제인형, 동화책, 머크컵 등이 든 선물 보따리를 손에 쥔 환이들은 오랜만에 아픔을 잊고 매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 12월 24일(일)

##### 달콤 바삭한 크리스마스이브 쿠키

크리스마스이브, 달콤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백린 병원장은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못하고 병원을 지키는 교직원들을 위해 양 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크리스마스 쿠키입니다.

원장산타의 생각지도 못한 달달한 선물에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고려대 구로병원의 크리스마스이브는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 건/강/한/식/탁



### 굴과 콩나물의 환상적인 만남, 굴밥

굴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유유라고 불린다.

또 칼슘과 비타민 A, B, C의 함량이 높아 희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게다가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간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카사노바도 즐겨 먹었다는 보양식으로 유명하다.

아삭아삭 콩나물과 굴을 넣은 맛 좋은 굴밥으로 겨울철 가족 건강을 챙겨보자!

[도움말: 고대 구로병원 영양팀]

### [굴밥]

1. 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고춧가루, 다진 마늘, 쪽파, 간장,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3. 굴을 소금물에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헹군 뒤 물기를 뺀다.
4. 밥솥에 불린 쌀과 콩나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인다.
5.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인다. 쌀이 익으면 굴과 참기름을 넣고 15분간 뜸을 들인다.
6. 기호에 따라 김가루를 밥 위에 뿌린 후 양념장을 곁들여 낸다.

<재료> 굴 100g, 콩나물 50g, 쌀 2인분,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쪽파 2줄기, 간장 4큰술, 참기름, 김가루

